

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해마다 증가...예산낭비 없나

그린카진흥원 342억·여성재단 32억
대부분 인건비·운영비 증가 원인
“관행적...재정운영 방안 살펴봐야”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22일 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기관별로 출연금 규모를 결정할 뒤 이를 본예산에 넣는다.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기관별로 출연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의 내년도 출연금은 342억원에 이른다. ‘광주형 일자리’ 연계 사업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에 261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에 51억원, 자동차부품업체 역량 강화 지원에 10억원 등이 들어간다. 또 그린카진흥원의 출연금은 2016년 39억원, 2017년 165억원, 2018년 242억원, 2019년 31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 개최하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출연금은 전시 행사·운영비 34억원, 인건비 16억원 등 55억원이다. 비엔날레가 열린 2016년 40억원, 2018년 39억원에 비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출연금은 올해 96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교통약자 차량(216대)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2016년 77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8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015년 29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2015년 18억원에서 41억원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인력 증원 등 인건비 증가로 광주여성재단의 출연금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광주교

통문화연수원은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개관한 국립광주과학관의 출연금은 41억원으로 2016년 17억원, 2017년 18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의 출연금은 2016년 각각 15억원, 11억원에서 내년 24억원, 14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올해 132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최영환 의원은 “관행적으로 해마다 출연금을 늘리거나 방만한 재정 운용이나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심마를 두암골 한마음 축제

지난 12일 광주 북구 두암3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열린 '제5회 안심마를 두암골 한마음 축제'에서 주민들이 식전행사로 열린 난타공연과 사물놀이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인쇄의 거리에 '인쇄소공인 종합센터'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15억 받아
35억 들여 4층 건물 매입 리모델링

광주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 '인쇄소공인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구축' 공모에 '인쇄소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돼 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일보 2019년 9월 9일자 5면〉
광주시는 지역 인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집적기에 있는 지역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국비 15억원 등 35억원을 투입해 기존 건물을 사들여 인쇄소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전체면적 495㎡ 규모의 건

물을 사들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인쇄 전문 장비 갖춘 공용장비실, 공용창고, 컴퓨터 교육실, 세미나실, 전시·판매장, 회의·상담실, 운영 사무실, 기계·전기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레이저 절단기, 디지털 프린터기, 제본기, 3D프린터 등 인쇄에 필요한 공용 특화 장비를 갖춘 예정이다.

인쇄소공인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공동 인프라 활용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인쇄 전문인력 양성 등 고급 인재 확보, 인쇄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집적지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지역의 인쇄·출판업체는 49.7%가 동구에 있으며, 동구에서도 약 50%가 서남동 일대에 모여 있다. 서남동 인쇄업체의 99.7%가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소공인이며, 40세 이상 종사자가 68.6%로 고령화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장산~자라 2.1km 연도교 개설공사 조만간 착공

신안군, 사업비 일부 군비 부담 제시

천사대교, 자라대교 개통에 이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2.1km의 장산-자라 간 연도교 개설공사가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산-자라 간 연도교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 Track) 행정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8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장산-자라 간 연도교는 사업비 1101억원을 들여 해상교량 1.45km와 접속도로 0.65km를 포함한 2.1km 2차로로 건설된다.

지난 9월 신안군은 하의도 연결을 위해 미개통 해상교량 4개소 3.66km 구간 가운데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산-자라 간 지방도 구간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

업에 속도가 붙었다. 해상교량 4개소는 장산-자라(연장 1.45km), 막금-장산(0.44km), 소막금-막금(0.66km), 신의-소막금(1.11km) 등이다.

전남도는 신안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하의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4개소 중 장산-자라 간 지방도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나머지 국도 3개소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타당성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난 6월 '2030 전라남도 섬 연결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하의도 연결을 포함한 추포-비금 등 7개소 도로(12.05km, 사업비 9827억원)에 대해 국도 2호선 승격을 추진하는 등 신안다이어몬드제도의 완성을 위한 해당 사업이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거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

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의 새로운 바람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개선, 상·하수도 보급, 지방 상수도 연대화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산림 휴양·복지 기반 구축

-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 숲, 재배방지림 및 소득 숲 조성
- 산림휴양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숲길 정비 및 휴양지오벨트 조성

도민 제일주의 소통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운영, 주민 맞춤형 강좌,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 위임 민원 확대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 방문 민원 처리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언제나 도민 곁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 T. 061-286-7821~4